

GWANGJU

FOOTBALL CLUB

May 2015 / NO. 01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NEWS

- “광주가 돌아왔다!” 클래식으로 복귀한 광주 FC
- ‘믿음의 리더십’ 남기일 감독의 광주 축구 알아보기!
- 광주 FC, 클래식 돌풍을 이어간다!
- 2015시즌, 광주의 공수를 이끌 6인방!

Hyundai Oilbank  K LEAGUE CLASSIC 

05월 03일 (일) 13:30



전남

05월 09일 (토) 14:00



수원

05월 17일 (일) 14:00



포항

05월 24일 (일) 14:00



부산

05월 30일 (토) 14:00



제주

“광주가 돌아왔다!” 클래식으로 복귀한 광주 FC



광주 FC가 드디어 K리그 클래식 무대로 돌아왔다. 지난 2012년 강등의 아픔을 겪은 광주는 2013년 승격에 실패하며 한 차례 시한착오를 겪었다. 절치부심하며 지난 2014시즌 승격에 도전한 광주는 선수단 전원을 비롯해 코칭 스태프와 팬, 시민이 하나 되어 승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다. 결과적으로 광주는 승강플레이오프를 통해 K리그 클래식 무대에 복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승격까지 오는 길이 절대 순탄하지는 않았다. 남기일 감독대행 체제로 시즌을 시작한 광주는 강력한 우승후보라는 평가와 달리 시즌 초반 불안한 행보를 보여줬다. 개막 이후 10경기에서 3승 2무 5패에 그치면서 중하위권으로 순위가 추락했다. 승격을 목표로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단행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즌 초반 조직력을 흔든 원인이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급기야 10라운드 이후에는 15라운드까지 6경기 연속 무승(4무 2패)의 부진에 빠지며 최악의 한 해를 보내는 듯했다.

그러나 후반기 광주는 달라졌다. 7월 이후 점차 경기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2주간의 여름 휴식기를 보낸 8월 이후 조직력과 팀 컬러가 완성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후반기 단 한 차례의 연패도 허락하지 않으며 비교적 꾸준한 페이스로 승점을 쌓아나갔고, 수원 FC, FC 안양 등 승격 경쟁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순위 싸움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3위와 5위 사이를 오가는 성적으로 상위권에 진입할 기회를 노리

던 광주는 결국, 골득실 차로 안양을 따돌리고 4위를 차지하며 극적으로 K리그 챌린지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손에 넣었다.

플레이오프에 진입한 광주의 상승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4위로 플레이오프 막차를 탄 광주는 강원 FC와의 준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안산 경찰청과의 플레이오프를 거쳐야만 승강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험난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하지만 선수단 전체가 승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며 연승 행진을 이어간 끝에 당당히 승강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홈앤Away로 치러진 승강플레이오프에서 경남 FC와 마주한 광주는 홈에서 조용태와 디에고의 활약을 앞세워 3-1 승리를 거두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원정에서 열린 2차전에서도 김호남의 동점골에 힘입어 1-1 무승부를 기록해 감격적인 승격을 확정 지었다. 2년간의 아픔을 씻어낸 값진 결과였다.

강등 이후 승격을 향해 긴 행보를 이어온 광주에 2014년은 뜻깊은 한 해였다.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으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광주의 발걸음은 팬들과 시민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제 K리그 클래식으로 돌아온 광주는 더 힘찬 날갯짓으로 2015년 역시 자신들의 해로 만들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 FC, 클래식 돌풍을 이어간다!

광주 FC는 지난해 K리그 챌린지의 주인공이었다. 우승을 해서 주인공이 아니라 우승보다 값진 도전, '기적' 을 완성했다. 힘들 것이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플레이오프를 통과해 마침내 K리그 클래식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모두가 영입, 재편으로 프리 시즌을 보낼 때 광주는 그런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우려 속에서 '우리의 축구' 를 강조했다. 하지만 조직력만으로 클래식을 넘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모두가 광주를 강등 후보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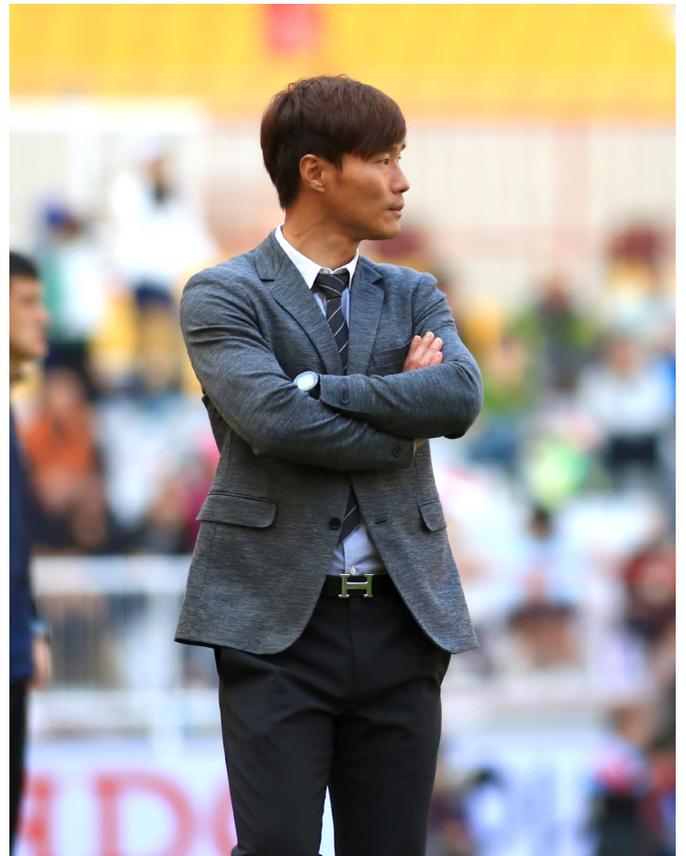
평가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 광주의 주축 선수들은 클래식으로 오면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다. 이종민, 조용태 등 클래식 빅클럽 출신 선수들이 있었지만 제종현 골키퍼를 비롯해 김호남, 임선영 등 대다수의 선수들이 무명에 가까웠다. 보통 기적을 경험한 팀들은 거짓말처럼 무너진다. 말 그대로 '기적' 임에도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에 기적은 달콤한 독약과 같다. 하지만 광주는 '답' 을 알고 있었다. 좋은 영입은 물론 팀 전력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광주가 가진 색깔을 잃을 수도 있었다.

클래식으로 올라온 광주는 다른 팀들과 달랐다. 광주 선수들의 눈에는 뚜렷한 '목표' 가 있었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자신감' 이 있었다. 남기일 감독은 감독 대행을 지내며 광주에 광주만의 색깔을 입혔다. 예산이 부족해 클럽하우스도, 변변한 훈련 시설도 없었던 광주가 개막전 이후 빅클럽들을 위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것에 있었다. 광주에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없다. 하지만 광주의 축구는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누구를 상대로든 광주의 축구를 하는 것. 남기일 감독은 그것을 원했고 선수들은 필드에서 펼쳐냈다.

클래식이 개막하고 광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어 광주는 4월까지 홈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연이은 원정 경기는 승격 팀에 가혹한 일정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광주는 초반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꿈꾸던 '반란' 을 현실화했다. 비록 이후 이어진 울산, 전북, 제주 3연전에서 패했지만 누구도 광주를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광주는 졌지만 '지지 않는' 저력을 선보였다. 강팀과의 경기라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고 본인들의 축구를 선보였다. 결과보다 내용에 집착했다. 프로의 세계에서 사라진 아름다운 패자에 대한 낭만을 광주가 다시 한번 실천한 셈이었다.

이제 8라운드만 끝났지만 광주를 강등 1순위로 보는 사람은 없다. 승격만큼 어려운 잔류지만 승격을 해낸 광주가 두려워할 목표는 아니다. 남기일 감독과 광주 선수들은 잔류보다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다. 시민구단 광주는 중반 이후 대다수의 시민구단들이 그랬듯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

만 '시민구단', '작은 구단' 이라는 평가를 넘어 광주는 클래식에 새 바람을 불어오고 있다. 더 이상 광주에 기적은 없다. 앞으로 광주가 보여줄 행보는 기적이 아닌 그들만의 축구로 세상의 물음에 답하는 일이다. 프로의 세계에 모범답안은 없다. 지금 광주는 최고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믿음의 리더십’ 남기일 감독의 광주 축구 알아보기!



광주 FC의 K리그 클래식 복귀와 올 시즌 초반 돌풍을 설명하는 데 빠져서는 안될 인물이 바로 팀의 수장 남기일 감독이다. 지난 2013년 8월 감독대행으로 처음 광주의 지휘봉을 잡은 남기일 감독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지난 시즌 팀을 승격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도 광주의 선전을 이끌고 있다. 도전의 역사를 함께해 나가고 있는 남기일 감독과 광주 축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소통과 믿음’ 광주 돌풍의 원동력!

광주를 이끄는 남기일 감독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소통’이다. 40대 감독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도 가장 젊은 감독인 남기일 감독은 선수들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감독대행으로 부임하기 이전 코치로 활동했을 당시에도 선수들과 대화를 즐겼던 남기일 감독은 선수단 내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수평적 구조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다. 감독의 가장 큰 권한인 전술에 관해서도 항상 열린 자세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과 공감을 이끌어낸다.

활발한 소통은 결국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수들 사이에 강한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광주 선수단이 하나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남기일 감독은 선수들을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선수 하나하나의 개성을 존중하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능력과 플레이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 선수들 역시 남기일 감독에 대한 신뢰를 갖고 따르고 있다. 광주가 지난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후반기 이후 승강플레이오프까지 반전을 쓸 수 있던 데는 선수단 전체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돌파한 것이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돌풍 이끄는 남기일 감독의 ‘확고한 철학’

특유의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묶은 남기일 감독은 광주만의 축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험난한 과정을 뚫고 K리그 클래식에 복귀했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축구 관계자들은 광주를 강등 후보로 분류했다. 하지만 남기일 감독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광주만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면 상위 6위의 성적도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확고한 팀 컬러는 경기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과로도 나타날 것이라는 남기일 감독의 신념이다.

남기일 감독의 광주는 창의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팀 컬러를 과시하고 있다. 4-3-3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면서 중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세밀한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기 운영은 강팀을 상대하면서도 변함이 없었다. 광주는 오히려 더 당당한 자세로 자신들의 팀 컬러를 과시하며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철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남기일 감독의 의지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올 시즌 광주는 남기일 감독의 확고한 철학 아래 단단한 전력을 뽐내고 있다. 시즌 초반 돌풍을 이어가며 경기력과 실력으로 강등 후보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남기일 감독 역시 광주의 선전을 이끈 지도력을 인정받아 ‘3월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도전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잘 내디딘 만큼 남기일 감독과 광주가 올 시즌 보여줄 행보에 대한 팬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현재 순위

기준 : 2015년 4월 26일

순위	구단명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득	실	차
1	전북	8	19	6	1	1	12	6	6
2	수원	8	14	4	2	2	15	9	6
3	울산	8	14	3	5	0	12	6	6
4	포항	8	13	4	1	3	12	9	3
5	전남	8	13	3	4	1	8	7	1
6	제주	8	12	3	3	2	10	5	5
7	성남	8	10	2	4	2	7	7	0
8	광주	8	9	2	3	3	11	12	-1
9	서울	8	8	2	2	4	7	13	-6
10	인천	8	6	0	6	2	6	8	-2
11	부산	8	5	1	2	5	6	11	-5
12	대전	8	4	1	1	6	4	17	-13

남기일 감독 K리그 챌린지 발자취 (승강PO 포함)



56 경기

승 **25**

무 **13**

패 **18**

75 득점

61 실점



의미 있는 기록들

최다 연승

3연승

2013.09.23 - 2013.10.06,
2013.11.03 - 2013.11.16

최다 무패

6경기

3승 3무
2014.07.19 - 2014.08.31

연속 득점

9경기

2013.08.19 - 2013.10.13

연속 무실점

4경기

2014.08.10 - 2014.08.31,
2014.11.08 - 2014.11.29

2015시즌 광주 FC 성적표 (8R 기준)

득점 시간대



3월 이달의 감독상 수상



남기일 감독

최다 득점

2득점



김호남 이종민

최다 도움

2도움



여름 이종민

최다 슈팅

14개

김호남



팀 최다 득점 5위

2승

3무

3패

11 득점

12 실점

2015시즌, 광주의 화끈한 공격을 이끌 공격 3인방!

8ROUND 기준

**NO.11 김호남**

1989.06.14 / 178cm / 73kg

**NO.7 여름**

1989.06.22 / 175cm / 69kg

**NO.5 임선영**

1988.03.21 / 185cm / 77kg

4경기

2골

1도움

‘호남의 아들’ 김호남은 이승기, 김은선, 김동섭 등 광주가 배출한 스타 플레이어의 뒤를 이을만한 재목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실력은 물론, 눈부신 외모까지 겸비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호남은 지난 2011년 창단 멤버로 5시즌 동안 광주와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프로 데뷔 이후 두 시즌 동안은 3경기 출전에 머물렀으나 묵묵히 자신의 기량을 다듬는데 매진했고, 남기일 감독의 선택을 받은 2013년부터 맹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다. 2013년 28경기, 2014년 37경기를 소화하며 15골을 기록, 클래식 승격의 선봉이 됐다. 클래식 무대에서도 그의 진가는 여전했다. 4경기 동안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광주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8경기

2도움

여름 역시 지난 2011년 창단 멤버로 광주의 유니폼을 입었으나, 입단 후 2년 동안 1부 리그 무대를 밟지 못했다. 그러나 남기일 감독은 그의 노력과 특별한 감각을 인정해 경기에 중용했고, 그는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량으로 경기를 누비며 남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그의 진가는 지난해 경남 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더욱 빛났다. 1차전 선제 골과 2차전 마지막 골을 도우며 광주 승격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올 시즌에도 이찬동, 임선영과 함께 든든한 허리진을 구축하며 8경기서 2도움을 기록, 광주의 ‘특급 도우미’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7경기

1골

광주의 ‘캡틴’ 임선영은 넓은 활동범위가 장점이다. 주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뿐 아니라 측면과 상대진영을 헤집는 전천후 미드필더다. 실 새 없이 움직이는 덕에 광주의 모든 공격은 그의 발을 거칠 정도다. 임선영 역시 광주의 창단 멤버로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그 동안 94경기에 출전, 올 시즌 광주 소속 최초로 100경기를 앞두고 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큰 부담감 없이 ‘함께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임선영.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모든 평가를 뒤엎고 광주의 돌풍을 보여주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그가 이끄는 광주의 화끈한 공격을 기대해 보자.

2015시즌, 광주의 단단한 수비를 책임질 수비 3인방!

8ROUND 기준



NO.17 이종민

1983.09.01 / 175cm / 68kg



NO.40 이찬동

1993.01.10 / 183cm / 80kg



NO.26 안영규

1989.12.04 / 185cm / 75kg

8경기

2골

2도움

이종민은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 FC 서울 등의 클래식 팀에서 통산 232경기의 경험을 쌓은 '베테랑' 수비수로 젊은 광주에 노련함을 불어 넣을 적임자다. 지난해 광주에 등지를 든 이종민은 30경기에 나서 챌린지 최소 실점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노련한 수비는 물론 날카로운 왼발 킥을 바탕으로 활발히 공격에 가담해 3골 6도움을 기록, 광주의 창 끝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의 공격 본능은 클래식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개막전 극장 골로 광주의 클래식 승격 첫 득점의 주인공이 됐고, 2라운드 부산과의 경기에서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다. 올해 더욱 빛날 그의 날카로운 왼발을 기대해 보자.

6경기

수비진 앞에서 그들을 든든히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찬동은 1993년 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련한 플레이를 자랑한다. 어린 나이임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이고 거침없는 플레이로 '싸움닭'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 2014년 드래프트를 통해 광주에 입단한 그는 31경기 1골을 기록하며 데뷔 시즌에 주전을 꿰찼다. 올림픽 국가대표팀 감독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에게도 합격점을 받아 국가대표에 승선, 지난 AFC U-23 챔피언십에 나섰다. 올 시즌 "신인상이 아닌 헌신상이 목표"라는 다부진 포부를 밝힌 이찬동. 그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자.

7경기

1골

광주의 U-18팀인 금호고 출신 안영규는 수원 삼성, 대전 시티즌을 거쳐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의 유니폼을 입었다. 수비수 보강을 위해 영입된 안영규는 지난 2009년 U-20 청소년 대표팀에 승선하는 등 이미 잠재적인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는 장점인 수비 위치 선정과 커버 플레이, 제공권 장악 능력을 살려 광주의 수비진에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서 절묘한 헤딩으로 선제 득점을 뽑아내며 자신의 클래식 무대 첫 골도 신고했다. 이처럼 안영규는 광주에서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5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2015시즌 홈 경기 일정

05월 03일(일) 13:30		전남 드래곤즈	08월 19일(수) 19:00		대전 시티즌	10월 04일(일) 14:00		수원 삼성
05월 09일(토) 14:00		수원 삼성	08월 23일(일) 19:00		제주 유나이티드			
05월 17일(일) 14:00		포항 스틸러스	08월 29일(토) 19:00		울산 현대			
05월 24일(일) 14:00		부산 아이파크	09월 09일(수) 19:00		인천 유나이티드			
05월 30일(토) 14:00		제주 유나이티드	09월 13일(일) 14:00		부산 아이파크			
08월 12일(수) 19:00		전남 드래곤즈	09월 23일(수) 19:00		전북 현대			

광주FC SNS

-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
-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발행일 2015년 04월 27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풍암동) 광주광역시 체육회관 3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 더스포츠 이우석, 남영우, 정유석 기자 / 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c)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